

SERI 경제 포커스

2010. 8. 17. (제305호)

미국경제 회복의 관건: 민간부문 소비여력 확충

목차

FOCUS	1
1. 위축되고 있는 미국경제	
2. 미국경제 3大 리스크 요인	
3. 미국경제 향후 전망	
4.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4
경제일지	15
경제통계	18

작 성: 곽수중 수석연구원
(soojong.kwak@samsung.com)
02-3780-8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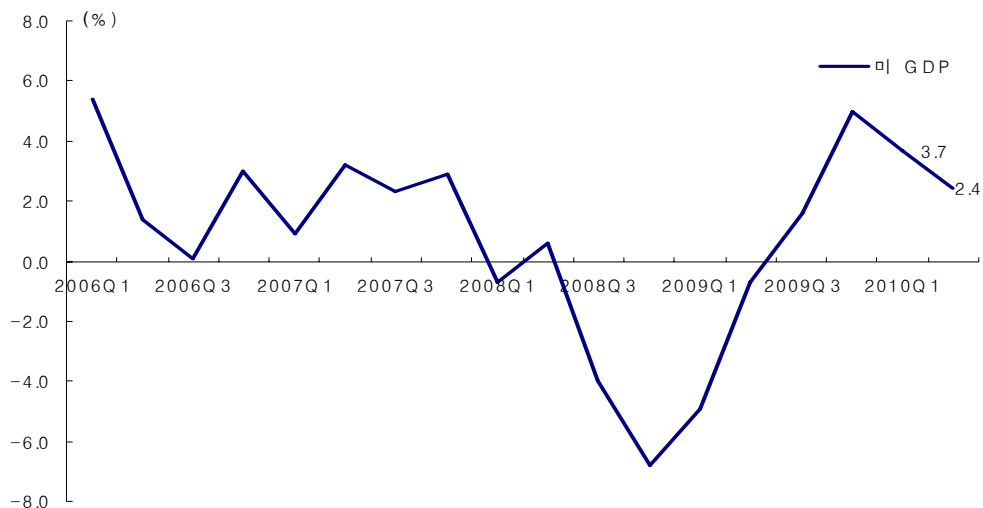
1. 위축되고 있는 미국경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둔화

-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은 2009년 3/4분기 1.6%를 시작으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다가 2010년 1/4분기 3.7%에서 2/4분기 2.4%로 하락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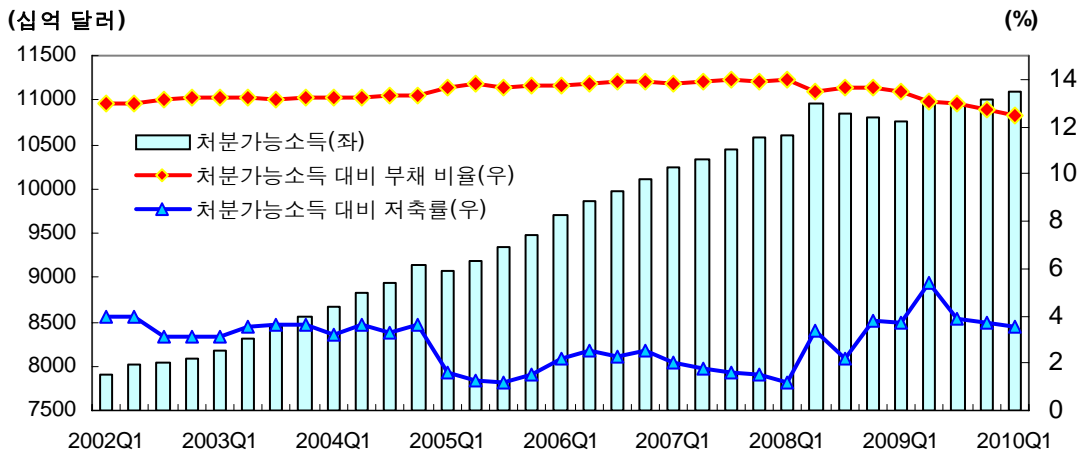
미국의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EA

- 민간소비 부진이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2010년 1/4분기 1.9%에서 2/4분기 1.6%로 둔화
- 고용과 소비 등 미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위축
 - 6월 현재 개인소득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가계 저축률은 6.4%로 경기침체 직전인 2007년의 1.7%에 비해 무려 약 4 배나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지속

미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 및 부채 비율



자료: BEA; FRB

□ 경기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한 미국경제에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제기

- 지난 6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0.9% 상승하는 데 그치며 196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연준의 목표치인 1.5~2.0%선 아래인 1.4%를 기록
- 2년물 국채 금리는 8월 들어 0.5%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물 역시 2.8%까지 빠지며 15개월來 최저치를 기록¹⁾

□ 미 정부와 주요 민간기관들은 2011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

-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2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상황을 경고
- 미 연준은 2010년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3.7%에서 3.0~3.5%로 하향 조정하고 2011년 전망치는 3.2~4.5%에서 3.5~4.2%로 하향 조정

¹⁾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나 주식시장 투자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매입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채권가격과 수익률은 역관계에 있으므로 채권금리는 하락하게 됨

- 예측기관들은 미국의 경제회복세가 모멘텀을 상당히 잃고 있다는 판단²⁾과 함께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
- 골드만삭스는 2011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5%에서 0.6%p 하향 조정한 1.9%로 제시

거시경제지표는 혼조세

□ 미국의 경기 선행, 동행, 후행 지표들은 최근 들어 경기회복에 관한 엇갈린 전망과 반응을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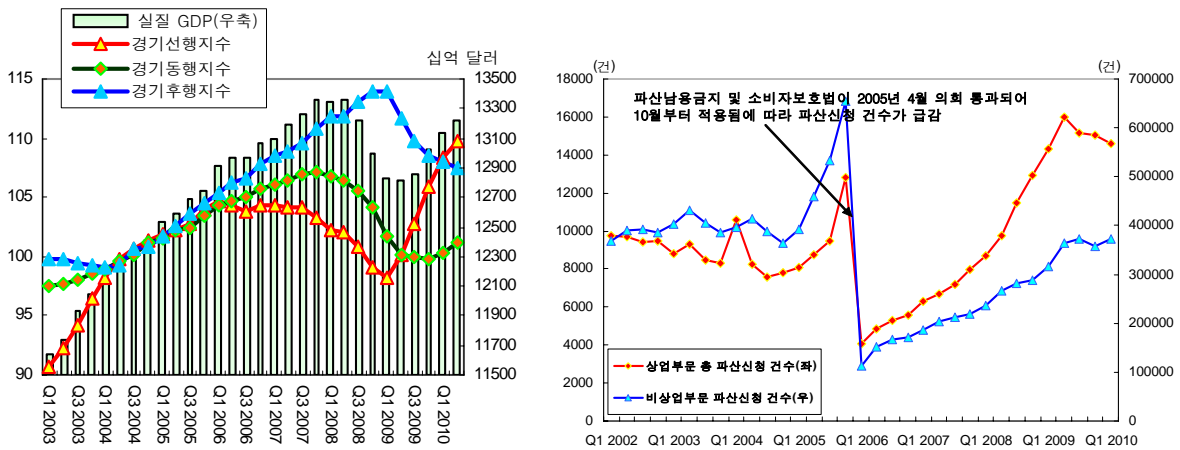
- 미 콘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는 2011년 경기예측에 신중한 모습
 - 2010년 6월 현재 경기 선행 및 동행 지수는 각각 109.8과 101.4로 2009년 12월 이후 월평균 2.6%와 1.4% 증가 추세
 - 한편 경기후행지수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불안정, 노동 및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
-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미 콘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표를 구성하는 지수들이 미국 거시경제가 2011년 여름부터 다시 둔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
 - 즉 향후 18~24개월 내에 미국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반면, 미국의 경기순환조사연구소(ECRI)가 매주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9주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
 - 지난 8월 6일 ECRI 경기선행지수가 122.4로 전주의 121.7에서 0.7p 상승
 - ECRI의 연 성장률도 전주의 -10.3%에서 -9.8%로 다소 개선되며 지난 7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인 파산신청 건수 역시 혼조세

²⁾ 마켓워치의 조사 결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4분기 2.4%의 GDP 성장률이 확정치 발표에서는 1.3%로 거의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상업부문 파산신청 건수는 소폭 둔화하는 반면, 비상업부문의 파산신청 건수는 소폭 증가세
- 2010년 1/4분기 상업부문 파산신청 건수는 1만 4,607건으로 파산신청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4분기 대비 8.8% 감소한 반면, 비상업부문 파산신청 건수는 37만 3,541건으로 2009년 4/4분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

미국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 변화 추이 미국 파산신청 건수 변화 추이



자료: The Conference Board; BEA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미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마저 대두

□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블 딥' 또는 '디플레이션' 논쟁이 본격화

-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를 경기침체로 규정하는데, 더블 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된다는 의미
-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
-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어야 회복기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W자형' 경제 회복이라고도 함
- 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재화 및 용역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 통화량이 축소되어 물가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경제활동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도 해석 가능
 - 경기침체, 소득 감소 등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의 가치는 상승
- 현재 누리엘 루비니 교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비관론적 학자들은 더블딥 혹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
 - 로버트 실러 교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50%로 보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25~30%로 예상

□ 이와 함께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도 확산

-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추가 경기부양을 주장
 - 반면 로버트 루빈, 폴 오닐 전 재무장관은 부양보다 긴축을 강조
 - 미국경제의 경기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부담과 지나친 디플레이션 방어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부양을 반대
 - 대부분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설문조사에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피력
-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지난 8월 10일 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추가 통화 완화정책을 발표
 - 미 연준은 생산과 고용의 회복세가 최근 수개월간 둔화되었으며, 경제 성장과 회복이 향후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
 - 연준이 보유한 모기지증권(MBS)의 만기 도래분을 장기 국채 매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대³⁾

³⁾ 미 연준은 2009년 4월 이후 1.2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과 2,000억 달러의 패니메이, 프레디맥 채권을 매입한 상태로 연간 약 1,000억~1,800억 달러 이자 수익금을 이용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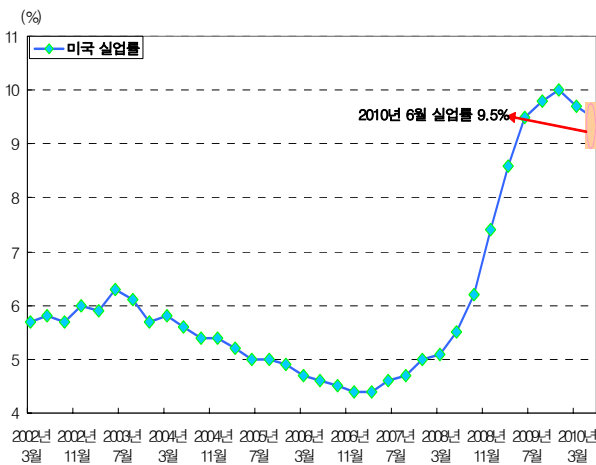
2. 미국경제 3大 리스크 요인

- 향후 미국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점검할 필요
 -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는 고용(실업률), 주택시장 및 지방정부 재정의 3가지 변수에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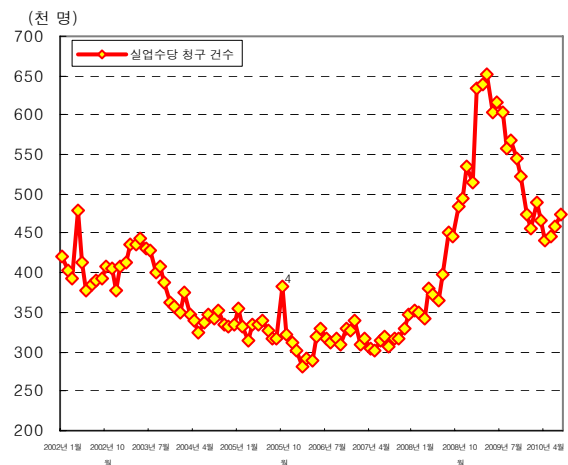
① 고용시장: 부진 양상 지속

- 현재 미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고실업, 저임금 및 저소비
 -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2008~2009년 사이 84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가운데 7월 현재 실업률은 2009년 12월 10%에서 소폭 하락한 9.5%
 - 월평균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평균 5~6%의 성장이 필요한데, 2011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경우 실업률은 당분간 9% 후반대에서 정체
 - 한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9년 4월 65만 1,000건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 6월 현재 최고치인 48만 4,000건을 기록

미국 실업률 변화 추이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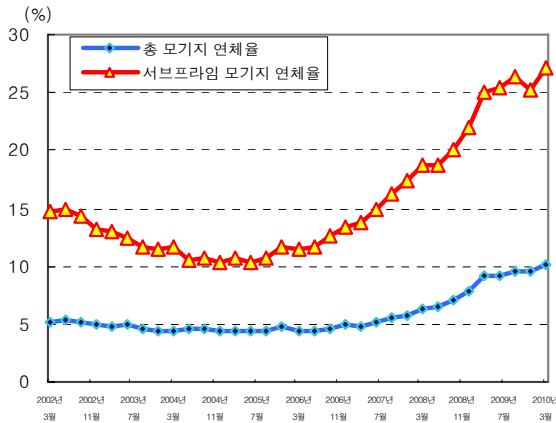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② 주택시장: 먹구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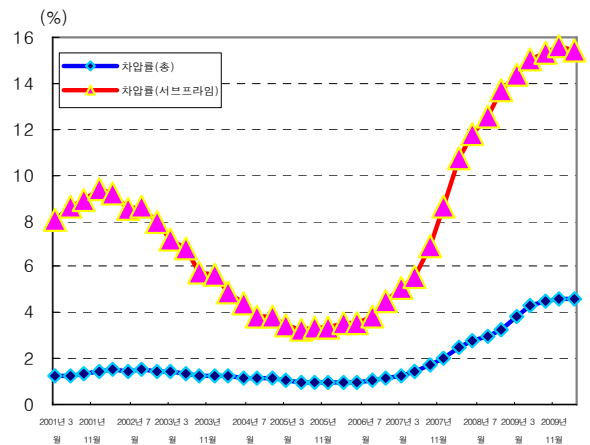
- 주택시장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
 - 5월 미국 주택시장은 생애 첫 주택매입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신규주택(전월비 -32.7%)과 기존주택(전월비 -2.2%) 판매량이 모두 감소
 -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도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직 증가,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마비 상태
 -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의 지속 가능한 회복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고용 증가가 주택시장 회복의 선결조건

- 가계 재무구조 악화로 당분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상업 및 주택 모기지의 연체율과 차압률이 모두 상승 추세
 - 총 모기지 연체율과 서브프라임 모기 연체율은 2010년 3월 각각 10.26%와 27.21%로 최고치를 경신
 - 대출업자들이 상환 연체된 가구를 대상으로 차압한 결과 주택차압이 8개월 연속 증가
 - 7월 현재 주택 차압률은 6월보다 9% 증가했고, 전년동월 대비 6% 증가

미국 부동산 대출 연체율 변화 추이



미국 부동산 차압률 변화 추이



자료: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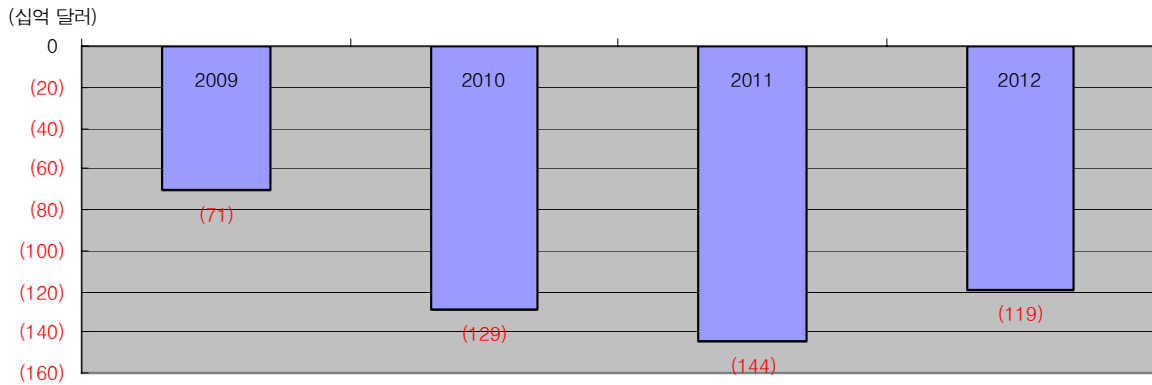
③ 지방정부 재정: 재정난 심화

□ 미 주정부의 재정난이 2012년까지 지속될 전망

- 각 주정부들은 균형예산법에 의거, 2011년까지 주정부 균형예산을 위해 다양한 지출삭감과 연방정부 지원금을 모두 기집행한 상태
- 주정부 예산적자 규모는 연방정부의 경기회복지원법에 의거한 400억 달러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2011년 약 1,4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미국경제가 완만하나마 성장을 지속하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개선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12년에는 약 1,2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
- 고실업과 저소비는 소득세와 판매세에 기반한 지방 정부 세수에 심각한 악영향
-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은 주정부의 소득세 세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 비용 지출 증가로 적자 누적을 악화시킬 전망
- 2011년에는 50개 주정부 가운데 총 46개 주정부에서 2012년에는 39개의 주정부에서 각각 총 1,210억 달러와 1,02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위기

- 주정부의 재정난은 70만 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 대량 해고와 추가 감원을 촉발할 소지
- 주정부의 재정위기와 감원 사태는 민간부문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결국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회복을 더욱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전망

2012년까지 주정부 재정적자 추정치⁴⁾



자료: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3. 미국경제 향후 전망

2011년까지 미 경기회복 가능성 60%

-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재정정책)와 양적 완화(통화정책)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 다만, 미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교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상황
- 현재 민간부문의 신용경색과 유동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한계에 봉착

⁴⁾ 연방정부의 「경기회복법(Federal Recovery Act)」에 의한 40억 달러 지원금을 포함한 주정부 재정적자 예상 규모

-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들은 적극적인 대출을 꺼릴 것으로 판단
 - 2000~2007년간 민간부문의 순차입은 연평균 2.4% 증가하였지만, 2007년 중반~2008년 중반 동안 경기악화로 무려 65%나 감소
- 향후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 통화량과 관련된 화폐유통속도가 미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양적완화정책은 민간소비와 자생력 회복에 상당한 파급효과
 - 평상시 미국의 화폐유통속도는 1.9인데 비해 2008년 3/4분기 1.86, 2009년 1/4분기 1.69로 하락하였으며 4/4분기에는 1.7을 기록⁵⁾
 - 미 연준이 민간의 소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통화량 규모는 약 1.7조 달러로 추정⁶⁾
 - 따라서 미국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향후 2년간 민간부문의 차입규모를 약 2.3조~2.6조 달러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⁷⁾
 - 매킨지는 2008년 12월 보고서에서 2011년까지 미국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차입규모 추정치를 1.6조~3.7조 달러로 분석⁸⁾
- 2.3조~2.6조 달러를 미국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부문 지원규모의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미국경제의 회복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로 구분⁹⁾

⁵⁾ 화폐유통속도는 화폐가 1년 동안 유통되는 횟수로 GDP에 대한 통화량의 비율로 나타냄

⁶⁾ 통화량 증가 추정규모는 2009년 4/4분기 화폐유통속도를 1.7로 하고 정상적인 미국경제의 화폐유통속도를 1.9로 할 경우, 유통속도의 차이 0.2에다 통화량 8.5조 달러를 곱한 규모로 추정

⁷⁾ 2000년대 들어와 가계와 기업의 연간 순차입규모가 연평균 2.4% 증가한다는 가정을 반영한 규모로서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통화량 증가 규모(1.7조 달러)와 역자산 효과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출 증대 규모 6,000억~8,800억 달러를 모두 포함한 규모

⁸⁾ 2009년 이미 지원된 1.5조 달러를 포함할 경우 향후 2년간 민간부문의 추가 필요자금 규모는 매킨지의 3.7조 달러와 거의 일치

⁹⁾ 일반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은 주요한 경기부양정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병행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칫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계

민간부문의 차입규모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가능 기간

구분	2.3조 달러 미만	2.3~2.6조 달러	4조 달러 이상
경제성장률 증가 폭	2.5%*	3.6%	3.8%
경기침체 지속 기간	2010~2013	2010~2011	2011년 상반기
더블 덩/경기회복 가능성	더블 덩, 40%	경기회복, 60%	인플레이션

주: *미국경제의 명목 잠재성장률이 3%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만일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여력 지원을 위해 최소한 2.3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못할 경우 미국 명목 잠재성장률은 최소 0.5%p 추가 하락할 가능성

① 민간부문의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규모가 2.3조 달러 미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전망이며, 미국의 잠재 명목 GDP는 0.5%p 또는 그 이상 추가 하락할 가능성¹⁰⁾
- 신용 손실이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기타 소비자 할부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할 전망
- 이 경우 미국경제는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질 소지가 커지고, 이에 따른 더블 덩 위험성도 높아질 우려

② 민간부문 지원이 2.3조~2.6조 달러 규모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 미국경제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완전한 경기회복에 진입할 가능성이 60%
- 미국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침체 기간도 짧아질 전망
- 미국의 잠재 명목성장률은 0.6%p 증가할 가능성

③ 민간부문 지원이 3조 달러 이상 이루어질 경우

-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소지

¹⁰⁾ 통화량이 x% 증가할 경우, 명목 GDP 또한 x%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 명목 GDP 규모를 약 14.3조 달러로 가정할 때 양적완화에 따른 미국경제 GDP 성장 가능성은 2.3/14.3=16.1%, 16.1%×3%≒0.5%. 한편 위기 후 블룸버그와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핼코의 최고경영자(CEO) 모하메드 엘 에리안은 미국의 잠재 명목GDP 성장률이 3%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

4. 시사점

글로벌 금융 및 통상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

- 더블 덩이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지나친 방어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부양에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하지만 미국경제의 더블 덩 위험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미 연준 등에 대한 경기부양 압력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판단

- 미국경제는 글로벌 정치·안보 등 비경제적 변수에도 민감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종 미 언론과 여론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 7월 이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 초반에서 40%대 초반으로 하락

□ 미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에 예의 주시

- 미국경제의 더블 덩 또는 침체의 지속 가능성은 유럽 경제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촉발할 가능성
- 신흥시장 공략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 미국경제의 변동성 증가가 확대될 경우, 미국 금융시장과 연동성이 큰 한국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대비

- 한국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은행세, 토빈세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對美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통상마찰 증가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통해 對美 직접투자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한미 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축소
 - DDA 프로세스를 통한 글로벌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 추세를 검토하고 위기 후 '지속 가능한 성장 또는 발전'에 주목¹¹⁾

<以上>

¹¹⁾ 지속 가능한 성장 또는 발전(Sustainable growth or development)이란 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당시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랜드 총리가 주장한(UNCED, Bruntland Commission)가 "경제 개발이 때로는 인간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악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에 부응하는 발전"으로 정의

주간 금융지표

금리 :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및 美 국채(10년)금리 연중 최저점 경신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

	8.09	8.10	8.11	8.12	8.13
회사채(AA-)	4.84	4.83	4.76	4.70	4.68
회사채(BBB-)	10.79	10.78	10.71	10.65	10.63
국고채(3년물)	3.92	3.91	3.83	3.76	3.73
콜금리	2.29	2.30	2.33	2.29	2.28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및 유로화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후 강세 반전

	8.09	8.10	8.11	8.12	8.13
원/달러	1160.1	1168.7	1182.5	1186.2	1183.8
엔/달러	85.93	85.43	85.22	85.95	86.20
달러/유로	1.3235	1.3178	1.2833	1.2824	1.2753
원/100엔	1350.05	1368.02	1387.59	1380.10	1373.40

자료 : 한국은행 ECOD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美 무역적자 규모 확대 및 中 7월 산업생산 부진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으로 하락

구 분		8.09	8.10	8.11	8.12	8.13
거래소	KOSPI(p)	1790.17	1781.13	1758.19	1721.75	1746.24
	거래량(만주)	29,070	30,106	38,036	35,976	27,860
	시가총액(조원)	989	985	972	952	966
	외국인순매수(억원)	626	531	-90	-5,395	-1,592
코스닥지수(P)		483.87	482.16	475.14	470.98	477.17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08. 16 ~ 08. 20)

<p>08. 16.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7월 수출입물가 동향(한국은행) 7월 수출입동향(확정치, 관세청) · 해외 보도자료: 유로지역, 7월 소비자물가(속보치, EU통계청) 일본, 2/4분기 GDP성장률(내각부)
<p>08. 17.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7월 전력판매량 시장거래 동향(지식경제부) · 해외 보도자료: 미국, 7월 생산자물가(노동부) 미국, 7월 산업생산(연준)
<p>08. 18.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2010회계연도 1분기 선물회사 영업실적(금융감독원)
<p>08. 19.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7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7월 경기선행지수(컨퍼런스보드)
<p>08. 20.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2010년 2/4분기 중 외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한국은행) 6월말 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기획재정부) · 해외 보도자료: 미국, 7월 소매판매(상무부) 미국, 7월 소비자물가(상무부) 유로지역, 2/4분기 GDP(EU통계청)

주간 해외 경제일지

(8. 9 ~ 8. 13)

미 주

<p>8. 9.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7월 비농업부문 고용 전월대비 13만 1,000명 감소, 노동부
<p>8. 10.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7월 고용동향지수 전월대비 0.3p 상승한 97.0, Conference Board
<p>8. 11.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 FRB
<p>8. 12.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6월 무역수지 적자 전월대비 18.8% 확대된 499억 달러, 상무부
<p>8. 13.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지난주 신규실업급여 신청자수 전주대비 2,000명 증가한 48만 4,000명, 노동부

유 럽

<p>8. 9.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기준금리를 1%로 동결, ECB
<p>8. 10.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6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경제부
<p>8. 11.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향후 2년간 인플레이율 연 1.5%로 전망, BOE
<p>8. 12.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6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8.2% 증가, Eurostat
<p>8. 13.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6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5.5% 하락, Eurostat

일 본

<p>8. 9. (월) · 일본: 6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1.3, 내각부</p>
<p>8. 10. (화) · 일본: 6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3p 상승한 98.9 내각부</p>
<p>8. 11. (수) · 일본: 7월 경기체감지수 전월대비 2.3p 상승한 49.8, 내각부</p>
<p>8. 12. (목) · 일본: 기업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0.1% 하락한 102.7, BOJ</p>
<p>8. 13. (금) · 일본: 7월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대비 0.2p 하락한 43.3, 내각부</p>

동 남 아

<p>8. 9. (월) · 중국: 7월 무역흑자 전월대비 40% 증가한 287.3억 달러, 해관총서</p>
<p>8. 10. (화) · 필리핀: 7월 CPI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중앙은행</p>
<p>8. 11. (수) · 중국: 7월 산업생산성장률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13.4%, 국가통계국</p>
<p>8. 12. (목) · 싱가포르: 2/4분기 실질 GDP 전분기대비 연률 24.0% 증가, 통상산업부</p>
<p>8. 13. (금) · 태국: 7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대비 2.3p 상승한 71.4, 상업부</p>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5	4.0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3	38.5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9	0.2	53.2	-0.2	2.8	3.6	-0.6	10.3	7.9	5.8	0.03	0.02	1,682.8
2009. 7			-3.8	1.6	3.7		9.6	7.0	5.46	0.02	0.01	1,557.3
8	1.0	52.6	-3.0	2.2	3.7		9.7	7.7	5.74	0.02	0.01	1,591.9
9			-2.6	2.2	3.4	-1.4	10.0	8.0	5.58	0.02	0.01	1,673.1
10			-3.1	2.0	3.2		10.0	7.7	5.60	0.02	0.02	1,580.7
11	6.0	53.2	-0.4	2.4	3.3		10.5	7.8	5.43	0.04	0.03	1,555.6
12			1.8	2.8	3.5	3.6	9.7	7.6	5.35	0.03	0.03	1,682.8
2010. 1			2.8	3.1	5.0		9.3	8.1	5.40	0.03	0.03	1,602.4
2	8.1	51.9	2.4	2.7	4.9		9.4	8.6	5.32	0.03	0.03	1,594.6
3			2.6	2.3	4.1	6.8	9.3	8.8	5.02	0.02	0.02	1,692.9
4			3.2	2.6	3.8		9.4	9.0	4.69	0.03	0.03	1,741.6
5		52.7	4.6	2.7	3.2		9.3	8.9	4.48	0.03	0.03	1,641.3
6			4.6	2.6	3.5		9.7	9.3	4.65	0.04	0.03	1,698.3
7	7.2	..	3.4	2.6	3.7	4.81	1,759.3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5	100.0	99.3	4.2	3.0	8.1	-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7	100.5	4.0	3.3	8.0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2.9	102.0	5.2	0.7	8.7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4.0	101.6	1.1	1.2	2.5	-13.8	-7.6	77.5	3.4	15.7	-3.1	22.1
2009	119.7	97.1	2.6	3.3	-2.0	-11.8	3.0	74.6	-0.9	7.3	-7.0	12.8
2009. 6	120.3	97.7	7.6	0.3	-4.9	-2.0	22.7	76.6	-1.3	2.6	-11.7	19.9
7	122.1	98.3	1.2	1.0	-5.5	6.1	-1.8	78.7	0.7	13.1	20.7	15.8
8	123.2	98.7	0.5	4.7	-2.4	-19.6	-27.0	77.7	1.0	21.0	-2.3	11.4
9	123.9	98.9	6.7	6.4	-2.1	26.5	55.3	79.9	11.5	23.3	34.9	31.7
10	124.7	98.9	9.8	9.4	5.3	-7.9	28.8	77.3	0.5	36.2	-14.2	-3.5
11	126.1	99.0	9.7	3.2	-1.3	56.2	78.8	78.2	18.8	72.3	15.9	-0.1
12	127.0	98.9	12.7	14.7	5.4	21.2	-19.6	79.6	36.0	109.0	58.9	-3.3
2010. 1	127.4	99.3	6.9	6.0	-9.3	11.2	17.1	78.9	38.9	66.7	78.8	10.0
2	127.1	100.0	13.1	16.3	29.1	-3.1	-6.7	80.3	19.6	63.8	29.5	-11.6
3	127.3	100.6	9.9	5.6	3.5	22.9	-25.3	82.4	23.6	64.6	45.1	-16.1
4	127.1	101.1	7.3	9.4	1.8	25.1	-14.6	82.2	20.7	47.3	42.1	-8.4
5	127.7	101.4	3.7	9.2	2.5	57.5	16.8	82.8	22.4	45.0	37.9	-13.6
6	128.2	101.7	3.8	12.9	6.7	1.5	-15.8	83.9	17.4	35.1	28.0	-13.1

주 :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5	284,419	12.0	261,238	16.4	41,343	-3.5	146,914	13.4	61,915	24.4	43,659	15.4	-7.4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8,450	11.0	-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	-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363,534	-13.9	323,085	-25.8	37,650	-18.8	190,761	-10.9	86,703	-5.1	46,608	-20.2	9.9
2009. 6	32,210	-13.6	25,689	-32.1	3,279	-22.2	16,135	-19.0	7,310	-16.1	4,002	-8.8	12.8
7	31,908	-22.1	27,680	-35.6	3,287	-20.7	17,267	-20.9	7,804	-12.9	3,505	-32.9	9.1
8	28,950	-20.9	27,408	-32.2	3,144	-11.4	16,227	-15.0	7,657	-10.3	3,500	-28.2	13.9
9	33,922	-9.4	29,757	-24.7	3,387	-11.7	18,146	-2.0	8,363	3.4	3,776	-27.4	12.7
10	33,970	-8.5	30,397	-15.8	3,190	-28.1	18,048	0.2	8,178	9.5	4,664	-12.4	18.0
11	33,992	17.9	29,535	2.4	3,486	-0.4	18,354	37.1	8,163	54.1	4,356	3.3	15.5
12	36,010	32.8	32,920	23.9	3,358	-3.8	19,588	57.7	9,104	93.1	4,605	40.9	11.0
2010. 1	30,741	45.5	31,474	26.4	3,058	16.4	17,924	71.6	8,846	98.1	3,414	11.7	0.4
2	33,040	30.1	31,015	37.2	3,407	24.2	17,773	39.4	7,955	43.1	3,449	9.0	-0.2
3	37,427	34.2	35,520	48.5	4,073	38.7	20,780	47.9	9,762	50.8	4,790	21.1	1.3
4	39,359	29.8	35,462	42.6	4,339	32.7	21,209	41.9	9,917	41.9	4,703	8.5	-2.6
5	39,026	40.3	34,909	49.1	4,164	41.5	21,496	45.2	9,617	44.9	4,292	16.3	-6.2
6	41,921	30.1	35,493	38.2	4,472	36.4	21,538	33.5	9,551	30.6	5,583	39.5	-3.0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1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1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5,776	5,669	-16,672	5,900	-50,084	-15,633	--2,406	201,223	1,257.5	1,393.89	3,779	-301
2009	42,668	56,128	-17,203	4,554	26,448	-9,066	50,682	269,995	1,167.6	1,282.82	4,019	152
2009. 7	4,420	6,115	-1,898	511	2,201	-1,324	7,940	237,510	1,240.5	1,299.16		
8	1,922	3,320	-1,803	618	5,297	-276	4,064	245,459	1,244.9	1,332.80	3,974	30
9	4,054	5,269	-1,633	562	6,902	-538	7,911	254,247	1,188.7	1,318.80		
10	4,757	5,675	-1,313	559	1,583	-509	6,131	264,187	1,200.6	1,312.63		
11	4,278	5,842	-1,663	390	1,544	-2,835	3,389	270,892	1,167.4	1,348.27	4,019	152
12	1,522	4,023	-2,799	699	1,639	-1,367	975	269,995	1,167.6	1,282.82		
2010. 1	-631	1,376	-2,164	465	4,631	-1,680	316	273,694	1,156.5	1,287.00		
2	168	1,558	-1,778	548	-433	-764	2,442	270,660	1,158.4	1,299.31	4,098	180
3	1,798	4,500	-2,099	-257	1,516	-202	7,789	272,331	1,130.8	1,217.68		
4	1,422	5,124	-1,851	-1,378	8,557	-1,216	5,497	278,873	1,115.5	1,186.77		
5	3,818	4,171	-643	298	-12,038	-549	-593	270,221	1,200.2	1,318.54		
6	5,037	6,354	-1,672	327	-936	-470	1,885	274,219	1,210.3	1,364.56		
7	285,958	1,187.2	1,369.95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5	3.1	3.3	3.4	5.1	8,923	16,832	-7,487	4.25	10,717.50
2006	2.7	2.3	3.2	4.6	10,158	18,631	-8,035	5.25	12,463.20
2007	2.1	1.5	2.9	4.6	11,384	19,694	-7,266	4.25	13,264.80
2008	0.4	-2.2	3.8	5.8	12,770	21,172	-7,061	0.125	8,776.40
2009	-2.4	-9.7	-0.3	9.3	10,464	15,635	-4,339	0.12	10,428.0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2005	1.9	1.3	-0.3	4.4	6,566	5,688	1,657	0	1,649.7
2006	2.0	4.4	0.3	4.1	7,525	6,716	1,704	0.25	1,681.0
2007	2.3	2.9	0.0	3.8	8,393	7,314	2,110	0.50	1,475.6
2008	-0.7	-3.4	1.4	4.0	8,105	7,889	1,571	0.10	859.2
2009	-5.3	-22.4	-1.1	5.4	5,418	5,138	969	0.10	907.5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1.7	1.1	2.2	9.0	30,065	29,131	457	2.25	3,578.9
2006	2.9	3.8	2.2	8.3	33,935	33,510	500	3.50	4,119.9
2007	2.7	3.2	2.1	7.5	40,006	39,167	601	4.00	4,399.7
2008	0.6	-2.1	3.3	7.5	43,963	44,048	-1093	2.50	2,451.5
2009	-4.1	-10.3	0.3	9.4	34,323	33,652	-614	1.00	2,966.2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0.8	2.9	1.9	10.7	7,880	6,446	1,139	2.32	5,408.3
2006	3.0	5.8	1.8	9.8	9,042	7,580	1,505	3.48	6,596.9
2007	2.5	5.9	2.3	8.4	9,871	8,005	1,931	3.66	8,067.3
2008	1.3	0.0	2.8	7.3	10,057	8,413	1,652	0.86	4,810.2
2009	-5.0	-16.1	0.2	7.5	8,175	7,027	1,110	0.30	5,957.4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5	2.2	-1.3	2.0	4.8	2,116	2,802	-328	4.50	5,618.8
2006	2.9	0.0	2.3	5.4	2,436	3,200	-438	5.00	6,220.8
2007	2.6	0.3	2.3	5.3	2,208	3,106	-377	5.50	6,456.9
2008	0.5	-3.1	3.6	5.6	2,516	3,450	-220	2.00	4,434.2
2009	-4.9	-10.3	2.2	7.6	2,266	3,073	-178	0.50	5,412.9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1.9	0.2	1.9	9.3	3,541	3,766	-74	2.38	4,715.2
2006	2.2	1.3	1.9	9.2	3,871	4,173	-88	3.53	5,541.8
2007	2.3	1.2	1.6	8.4	3,995	4,399	-190	3.95	5,614.1
2008	0.4	-2.4	3.2	7.8	4,088	4,677	-442	1.87	3,218.0
2009	-2.2	-11.9	0.1	9.5	3,384	3,860	-434	0.37	3,936.3

주: 1) 3개월 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10.4	15.8	1.8	4.2	7,623	6,602	1,608	5.58	1,161.06
2006	11.6	16.3	1.5	4.1	9,693	7,917	2,533	6.12	2,675.47
2007	13.0	2.7	4.8	4.0	12,181	9,562	3,718	7.47	5,261.56
2008	9.0	-10.8	5.9	4.2	14,288	11,314	4,261	5.31	1,820.81
2009	8.5	-10.2	-0.06	4.5	12,003	10,005	3,715	5.31	3,277.14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4.7	4.6	2.3	4.1	1,985	1,790	176	2.25	6,548.34
2006	5.4	6.2	0.6	3.9	2,238	1,996	263	2.75	7,823.70
2007	6.0	5.7	1.8	3.9	2,465	2,161	330	3.38	8,506.28
2008	0.7	-1.8	3.5	4.1	2,549	2,364	251	2.00	4,591.22
2009	-1.9	-8.1	-0.9	5.8	2,034	1,733	391	1.25	8,188.1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